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 지표개발*

Development of Neighborhood Design Indicators for Supporting Casual Contacts and Meetings of Old Residents

Author 오찬옥 Oh, Chan-Ohk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김수영 Kim, Soo-Young / 비회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수지 Chang, Su-Jie / 비회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bstract Korean society is running fast toward a super aging society. This means that new solutions for new problems of aged people are needed. An important area to prove is the aging-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supporting casual contacts and meetings of old res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neighborhood design indicators which support casual contacts and meetings of old residents. The subjects were 24 professionals who had studied on hous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They answered through the on-lin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which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classification of neighborhood area and the indicators of each area using 5-points Likert scale. Also open questions asking adding or eliminating areas or indicator and other opinions were included. On the basis of these answers, the aging-friendly neighborhood design indicators supporting contacts and meetings of old residents was developed. They are consisted of 7 areas in neighborhood and 60 indicators. Those areas were semi-public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cultural & educational area, health & medical area, park & green area, walkway, and public traffic facilities. This would be used to desig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s that are aging-friendly and facilitating casual contacts and meetings of all residents, especially old residents.

Keywords 근린환경 디자인, 노인 친화적 근린환경, 접촉과 만남
Neighborhood Design, Aging-Friendly Neighborhood, Contacts and Meet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하는 큰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삼대가족형태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가족 차원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산되면서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가족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생활환경 즉 근린환

경을 노인 친화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생활반경이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집밖으로 나가 활동을 하게 해줌으로써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해줄 수 있다. 특히 노인뿐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만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들을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활력있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Burton & Mitchell¹⁾은 치매노인환자에게 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하여 멈추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 노인과의 면접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외출은 도로나 공원 등의 공간에서 이웃들과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인에게 많은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3A2033314)

1) Burton, Elizabeth & Mitchell, Lynne, Inclusive Urban Design : Streets for Life, Elsevier, 2006, pp.41-42

접촉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접촉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일반적인 웰빙에 좋으며 인간 생활의 질의 중심부분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앉는 장소가 있는 곳에 앉는 경향이 있다’²⁾고 하듯이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고 행동범위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을 배려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영역인 근린환경 곳곳에 앉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쉬면서 접촉하거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그 기회는 보다 늘어갈 것일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도시를 대상으로 노인 친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10개 영역의 49개 문항과 10개 영역의 59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인친화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한 보고서³⁾는 있지만, 물리적 환경영역 즉 근린환경시설과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는 외부환경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리적인 환경 즉 근린환경시설과 실외환경이 노인들의 접촉이나 만남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어떻게 계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일부 연구자들이 도시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생활시설의 이용현황과 인지된 근접성을 조사한 연구⁴⁾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각 시설별 이용권을 도출한 연구⁵⁾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린환경의 공간영역을 선정하고 이들 영역별로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디자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자립적인 외출 기회를 높여주는 근린환경과, 노인은 물론 다른 세대와의 접촉·만남을 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계획할 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작성한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의 영역분류와 영역별 지표내용에 대하여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전문

가가 2차에 걸쳐 적절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표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근린환경의 영역과 공간을 선정하여 분류하고, 각 공간이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지,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나 앉을 곳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앉을 공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상 공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를 본 연구의 범위, 즉 지표내용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과 관련하여 사람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디자인 용어로는 근접학(proxemics)과 친사회적 공간(socio-petal space)이 있다.

근접학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 간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⁶⁾ 이는 곧 사람들이 자주 보거나 만날 수 있는 공간환경이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근린환경 내 영역들을 선정하고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친사회적 공간은 서로간의 사회적 접촉을 지원해주는 공간⁷⁾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마주 보게 배치한 가구배치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사회적(socio-fugal) 공간과 반대되는 용어로 사람들이 서로 근접해 있더라도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거주자가 자주 이용하는 근린환경 영역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신체적으로 약화된 노인들을 배려하여 앉을 장소나 가구 등을 마련해 준다면 앉아 있는 사람끼리, 또는 앉아 있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 사이에 친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접촉·만남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앉을 공간이나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2) Whyte, William H.,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Project for Public Spaces, 1980, p.28

3) 김선자·김경혜,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이민홍·이계정, 부산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1

4) 이형숙,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시설 이용현황 및 인지된 근접성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2권 4호, 2011, pp.63-74

5) 김용진·안건혁, 노인의 주요 근린시설별 이용권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 5호, 2012, pp.215-222

6) Hall, Edward T.은 그의 저서인 The Hidden Dimension(A Doubleday Anchor Book, 1961)에서 proxemics를 문화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찰한 것과 이론과의 관계로 보고 문화권에 따라 사람 간에 유지하는 거리와 공간 사용행태가 다르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며 서술하였다.

7) Bell, P.A., Fisher, J.D., Baum, A.,and Greene, T.C., Environmental Psychology(3rd ed.),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90, pp.242-243

2.2. WHO의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지표

WHO⁸⁾에서는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위하여 노인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8개 영역은 실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사회적 참여, 존경과 사회적 포함,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이다. 이중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실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의 3개 영역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와 일치하는 영역은 실외공간 및 건물 영역과 교통 영역이다. 이 두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들은 주로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것과, 운영 등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1) 노인친화적인 실외공간과 건물 영역

실외환경과 공공건물은 노인의 이동성, 독립성, 생활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aging in place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므로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 영역의 경우 체크리스트는 총 11개였으며 이중 10개가 물리적 환경 관련 내용이었고 나머지 1개만이 서비스 관련 내용이었다.

먼저 주로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①소음과 냄새 등이 없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②접근용이하며, 화장실과 앉을 곳이 있으며, 잘 관리되고 안전한 녹색공간, ③장애물이 없고, 바닥표면이 부드러우며, 공중화장실이 있고, 접근용이한 보행자 친화적인 보행도로, ④누구나가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잘 관리되고 순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특히 공원, 정류장, 공공공간에서 이용가능한 실외 앉을 곳, ⑤도로까지 점차 낮아지는 낮은 연석으로,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넓으며, 바닥은 부드럽고 평평하며 미끄럽지 않고 잘 관리된 포장된 도로, 또한 노점 상인, 주차된 차, 나무, 개똥 등의 어떤 장애물도 없고, 보행자들이 사용 우선권을 갖는 포장도로, ⑥적절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기에 안전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보행자 교차로가 있으며, 교통안전지대, 고가도로나 지하도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도로, ⑦자전거 전용 도로, ⑧보안성, ⑨접근성, 엘리베이터, 경사로, 적절한 사인, 계단 난간, 너무 높거나 가파르지 않은 계단,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편안한 의자들이 있는 휴식공간, 충분한 수의 공중 화장실이 있는 건물, ⑩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접근용이하며, 사인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한 위치에 위치한 공공화장실 등이다.

서비스 관련 내용의 체크리스트는 ⑪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뿐이었다.

(2) 노인친화적인 교통 영역

교통은 활동적인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도시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참여와 시민의 참여, 커뮤니티와 건강 서비스에의 접근을 결정해 준다.

먼저 주로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의 체크리스트는 제시된 총 16개 중 7개로 ①바닥과 계단높이가 낮아 접근 용이하고, 깨끗하며 잘 관리되고, 차량 번호와 종점을 나타내 주는 사인이 명확한 노인친화적인 차량, ②안전과 편안함, ③노인 거주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좌석이 있으며, 날씨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적절하게 밝은 교통정거장, ④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적절한 플랫폼, 공공 화장실, 가독성이 있고 적절한 위치에 위치한 사인이 있으며, 접근 용이하며 편리한 곳에 위치한 역, ⑤가독성이 있고, 접근 용이하며, 장애인용 버스 노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표 등의 정보, ⑥잘 관리되고, 넓으며 조명이 잘 비추고, 적절하게 디자인되고 적절한 곳에 위치한 교통안전정비도구가 있고, 교차점에는 교통신호와 조명이 있으며, 명확하게 표시된 교차점이 있고, 뚜껑 덮힌 하수구가 있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보이며 적절하게 위치한 사인이 있는 도로, ⑦건물과 교통정류장 가까이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과 내리고 타는 구역이 제공되는 주차장이었다.

서비스 관련 내용의 체크리스트는 9개로 ⑧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교통비용, ⑨신뢰성과 빈도, ⑩병원, 건강센터, 공공공원, 쇼핑센터, 은행, 노인센터 등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과 연결되는 공공교통 노선, ⑪장애인을 위한 특수화된 교통서비스, ⑫노인 우대석, ⑬친절한 교통운전자, ⑭노인이 이용가능한 커뮤니티 교통, ⑮노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택시, ⑯운전 능숙도 등이었다.

이상의 체크리스트들은 노인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로, 노인들이 근린환경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체크리스트들 중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의 체크리스트들을 참고하였다. 즉 노인이 이용가능한 근린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보행도로와 각 시설 및 교통관련 시설들이 접근성과 안전성, 앉을 곳 같은 지원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의 영역범위와 지표내용의 일부를 설정하였다.

2.3. 노인의 외출 목적과 이용하는 근린환경

노인들이 이용하는 근린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은 통원치료, 쇼핑, 식사, 취미활동, 만남, 가족친구와의 교류, 산책 등을 위하여 외출하며 노인들이 외출할 때 들르게 되는 주요 장소는 현관 주변, 빗마루,

8)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

길, 주택, 가게, 시설, 공원 등이었다.⁹⁾ 이 연구에서는 케어가 필요한 노인의 거주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는 주택을 중심으로 지인의 집, 미용실, 커피숍, 공원, 슈퍼마켓, 병원·보건소, 노인개호보건시설, 주간보호서비스센터, 소규모 다기능시설, 노인복지관,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자녀의 집, 신사·사원, 학교, 묘가 포함되어 있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원, 노인회관, 종교시설, 상점, 병원, 정류장, 목욕탕, 은행, 체육시설, 재래시장, 미용실, 백화점, 음식점, 우체국의 순이며 노인의 근린생활시설 이용 빈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은 분리된 보행로, 교통사고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로수나 벤치 등의 시설이었다.¹⁰⁾ 또한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근린시설은 공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장, 식료품가게, 종교시설, 병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약국이었다.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근린환경들이 포함되도록 근린환경 영역을 정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토대로 근린환경의 영역분류 및 영역별 지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하였다. 1차 조사는 2013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9월에 2차 조사를 하였다.

3.2. 조사대상

조사대상인 전문가는 주거환경학이나 건축학을 전공하고 노인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박사 연구원 30인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30인 중 24인이 2차에 걸친 조사에 응답하여 주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응답자 분포를 보면, 대학교 교수가 62.5%였으며 연구소 연구원이 37.5%였다.<표 1> 여성이 83.3%였으며 연령은 40대가 41.7%, 50대가 37.5%, 30대가 20.8%의 순이었다. 이들이 노인공간에 대한 연구를 한 경력은 6-10년

이 47.8%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21.7%, 16년 이상이 17.4%, 11-15년이 13.0%의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 전문가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직업	교수	15	62.5	성별	남자	4	16.7
	연구원	9	37.5		여자	20	83.3
	계	24	100.0		계	24	100.0
연령	30대	5	20.8	노인공간 연구경력	2-5년	5	21.7
	40대	10	41.7		6-10년	11	47.8
	50대	9	37.5		11-15년	3	13.0
	계	24	100.0		16년 이상	5	21.7
					계	24	100.0

3.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영역분류 및 각 영역별 지표 내용의 적절성을 5점 척도¹²⁾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항목들과, 영역별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면 하는 공간과 기타 의견을 개방형으로 서술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근린환경의 영역분류는 WHO에서 제시한 노인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선행연구결과들¹³⁾을 참고로 하여 근린환경의 영역과 공간을 선정하여 분류하고, 이와 관련하여 1차 전문가 조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근린환경의 영역을 주택의 내부와 반공적 공간, 근린생활시설로 상업공간, 건강의료공간, 문화교육공간, 공원녹지공간, 도로, 대중교통시설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영역에 속하는 공간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지와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나 앉을 곳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으로 총 5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작성하여 2차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에 대한 조사자료는 질적 분석을 하였다.

4. 조사결과

9) Kazuhiko, Mori, 치매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가꾸기, 한국노년학회,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정책과제, 제6회 서울 노년학 국제학술포럼, 2011, p.53

10) 이형숙, op. cit., p.68

11) 김용진·안건혁, op. cit., p.218

12) 5점-아주 적절하다, 4점-적절하다, 3점-그저 그렇다, 2점-부적절하다, 1점-아주 부적절하다

13) Kazuhiko, Mori, op. cit., pp.31-57

이형숙, op. cit., pp.63-74

김용진·안건혁, op. cit., pp.215-222

4.1.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의 영역분류

근린환경의 영역은 문헌조사와 1차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택의 내부와 반외부공간, 상업공간, 건강의료공간, 문화교육공간, 공원녹지공간, 도로 대중교통시설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근린환경의 영역분류 기준은 첫째, 근린환경에 있는 공간들 중 노인의 접촉·만남 기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고, 둘째,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즉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른 거주자들도 이용하는 공간을 선정하며, 셋째,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 법적 기준과는 다르게 대상을 선정하고, 넷째, 근린환경별 지표는 아주 구체적인 고려사항보다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8개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2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적절하다(4.17점, S.D.=.482)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본 연구의 범위인 근린환경에 주택 내부의 교류공간(거실, 식당, 침실 등)과 현관, 욕실로 구성된 '주택 내부'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여, '주택 내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근린환경의 영역분류와 영역별 구체적인 공간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표 2> 노인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의 영역분류

분류	구체적인 공간
주택의 반공적 공간	단독주택의 대문 앞 및 담 주변, 골목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진입로, 엘리베이터 홀, 복도, 동과 동 사이 공간
상업공간	식품점/편의점, 시장, 쇼핑센터, 금융시설, 음식점, 카페
문화교육공간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노인관련시설(노인정,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종교시설
건강의료공간	의원/병원, 보건소, 약국, 실내운동시설(볼링, 에어로빅, 요가, 수영장 등), 실외운동시설(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공공목욕탕/사우나, 찜질방, 이미용실
공원녹지공간	공원, 녹지(화단 포함), 산책로, 휴게공간(정자 포함)
도로	차도, 보행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시설	버스정류장,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4.2. 근린환경 영역별 지표내용

(1) 주택의 반공적 공간 영역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주택의 반공적(semi-public) 공간영역에는 단독주택의 대문 앞과 담 주변 및 골목,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진입로, 엘리베

이터 홀, 복도, 동과 동 사이 공간 등의 공간이 포함되었다. 이들 공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 것이며, '단독주택의 골목'과 '공동주택의 복도'는 2차 조사결과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하여 포함된 것이다.

주택의 반공적 공간영역에 속하는 공간들의 선정기준은 첫째, 주택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반공적인 공간에서 이웃과의 접촉·만남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둘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반공적 공간 기준이 다르며, 단독주택은 대문 밖의 공간은 도로에 포함시켜 볼 수도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반공적 공간에 포함시켜서 보며, 셋째,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이지만 단위주택 밖의 공간인 반공적인 공간에서 이웃과의 접촉·만남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 이들 공간도 포함시켜 본다라는 것이다.

지표 내용은 이러한 주택의 반공적인 공간 주변에 앉아 쉬거나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의 내용들로 설정하였다. 이는 앉을 공간이 있어야 앉게 되고,¹⁴⁾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앉은 다른 사람, 또는 지나가는 사람과의 접촉·만남의 기회가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한 5개의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에 대한 반응은 3.96점-4.75점이었다. 5개 항목 중 4.0점 이하의 적절성을 보인 항목인 '공동주택 각 층의 단위세대 현관 입구나 엘리베이터 홀에 잠시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벤치 등이 제공되어 있다'(3.96점, S.D.=.955)는 제외했고, <표 3>과 같이 나머지 4개 항목만을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주택의 반공적 공간영역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3> 주택의 반공적 공간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 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주변에 잠시 앉아 쉬거나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벤치 등이 있다.	4.25 (.944)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외부 진입로 근처에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등이 있다.	4.71 (.550)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주변 내부 또는 엘리베이터 홀에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벤치 등이 있다.	4.42 (.717)
공동주택 단지 내 동과 동 사이의 공간에 앉아 쉬거나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등이 있다.	4.75 (.532)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동과 동 사이의 공간에 노인들이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등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은 4.75점으로 가장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외부 진입로 근처에 앉을 곳 등을 배려하였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도 4.71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비하여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주변 내부

14) Whyte, William H., op. cit., p.28

또는 엘리베이터 홀에 앉을 곳 등을 배려하였는지 하는 지표는 4.42점의 적절성을 보여 다른 공간의 경우에 비하여 약간 낮았다. 또한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주변에 앉을 곳 등을 배려하였는지도 4.25점으로 다른 지표에 비하여 적절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택에서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공동주택 단지 내 동과 동 사이의 공간, 공동현관 외부 진입로 근처, 공동주택 건물의 공동현관 주변 내부나 엘리베이터 앞의 순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상업공간 영역

상업공간 영역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공간인 식료품점/편의점, 시장, 쇼핑센터, 금융시설, 음식점, 카페의 5개 공간을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공간이 노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지와 자연스러운 접촉·만남 기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앉을 곳 등을 배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지표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표 4>와 같이 4.17점-4.67점의 높은 점수를 주어 10개 지표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10개 지표 모두를 상업공간 영역에서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제시한 상업공간영역의 5개 공간 중 시장이나 쇼핑센터가 노인 친화적인지(4.54점), 앉아 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를 배치하였는지(4.63점)가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공간여부를 결정해 주는 적절한 지표라고 한 정도가 가장 높았다. 식료품/편의점은 노인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반응은 4.67점으로 높았으나 앉을 곳 등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반응은 4.17점으로 비이보다 낮았다. 나머지 은행 등 금융시설과 마을 음식점 및 마을 카페의 3개 공간이 노인 친화적이며 앉을 곳 등에 대한 배려를 하였는지가 지표로서의 적절성은 4.21점-4.33점 사이로 비슷하였다. 이는 상업공간 중에서는 시장이나 쇼핑센터를 노인 친화적이며 앉을 곳 등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4개 공간은 여건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이들 상업시설은 거주자 중에는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배려하여 출입문 폭이나 단차 없는 편평한 바닥,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등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하여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들이 잠시 앉아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등 가구설비를 제공해 준다면 거주자들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 상업공간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 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식료품점/편의점 은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편평한 입구 바닥, 출입문 폭 80cm 이상, 출입문 개폐방식 등)	4.67 (.637)
식료품점/편의점 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17 (.963)
시장이나 쇼핑센터 는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편평한 바닥,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료, 길 찾기 쉬운 배치 등)	4.54 (.779)
시장이나 쇼핑센터 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63 (.576)
은행 등의 금융시설 은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편평한 입구 바닥, 노인친화적인 ATM 기기 디자인 등)	4.33 (1.274)
은행 등의 금융시설 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25 (.989)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음식점 이 있다.	4.33 (.637)
마을 음식점 은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편평한 출입구 바닥, 80cm 이상의 출입문 폭, 레버형식의 문손잡이, 사용편리한 식탁과 의자 디자인 등)	4.21 (.833)
주민들이 부담없이(실비)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카페 가 있다.	4.25 (.737)
마을 카페 는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편평한 출입구 바닥, 80cm 이상의 출입문 폭, 레버형식의 문손잡이, 접근성과 지원성을 갖춘 가구설비 디자인)	4.29 (.859)

(3) 문화교육공간 영역

문화교육공간 영역은 노인들이 직접 이용가능한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과, 어린 손자녀들을 돌보거나 지켜볼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지표내용은 이들 공간이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여부와 각 공간에 앉을 공간이나 의자가 있는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5가지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표 5>와 같이 4.04점-4.75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인관련시설과 종교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전문가의 의견과 선행연구¹⁵⁾에서도 노인관련시설과 종교시설을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두 시설의 유무와 접촉·만남을 위한 앉을 공간이나 의자 등에 대한 배려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된 지표 4개를 추가하여 총 9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지표의 적절성을 조사할 때 제시했던 3개 영역의 문화교육공간 중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의 근접한 거리 내 위치여부와 앉을 공간이나 의자에 대한 배려의 적절성은 모두 4.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같은 교육시설의 존재 여부와 앉을 공간에 대한 배려의 적절성은 4.04점과 4.33점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하여 낮았다. 즉 노인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노인에 대한 배려가 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화교육공간의 경우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인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15) Kazuhiko, Mori, op. cit., pp.53
이형숙, op. cit., pp.68
김용진·안건혁, op. cit., pp.218

도서관 또는 노인관련시설과 종교시설 등은 소규모라도 주거지역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들 시설 내에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공간이나 가구설비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문화교육공간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 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나 문화센터(공연, 전시, 강연, 문화강좌, 등), 도서관 이 근처에 있다.	4.75 (.442)
문화시설 에는 노인들이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75 (.442)
노인들이 회의나 행사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집회 공간 이 근처에 있다.	4.54 (.58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같은 교육시설 이 주변에 있다.	4.04 (1.042)
교육시설 주변에는 노인들이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누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33 (.761)
절이나 교회 또는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 이 근처에 있다.	추가
종교시설 에는 정구 행사공간 외에 노인들이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추가
노인정,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관련 시설 이 근처에 있다.	추가
노인관련 시설 들은 정구 프로그램실 외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추가

(4) 건강의료공간 영역

건강의료공간 영역은 의원/병원, 보건소, 약국, 운동시설, 공중목욕탕, 이미용실 공간이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와 노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지, 접촉·만남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10개의 지표내용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4.29점-4.75점의 점수를 주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운동시설의 경우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운동시설은 실내운동시설과 실외운동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설별로 3개씩의 지표를 구성하여 <표 6>과 같이 총 13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총 4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표내용 중 의원/병원이나 보건소, 약국이 주거지역에 근접 위치하고 있는지(4.58점)와 앉는 공간에 대한 배려(4.75점)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 운동시설의 주거지역과의 근접 위치(4.63점)와 노인친화적인 환경(4.42점) 및 앉는 공간에 대한 배려(4.71점)의 적절성은 높았다. 공중목욕탕/사우나의 주거지역과의 근접위치(4.46점)와 노인친화적인 배려(4.33점)의 적절성과, 이·미용실의 주거지역과의 근접 위치(4.29점)와 노인친화적인 배려(4.33점) 및 앉는 공간에 대한 배려(4.50점)의 적절성도 높은 편이었다. 이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의원/병원이나 보건소, 약국과 운동시설, 공중목욕

탕/사우나, 이미용실 등의 건강의료공간이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공간은 노인 친화적이며 노인들이 접촉·만남을 할 수 있도록 앉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건강의료공간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관련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의료 관련 시설들은 노인 친화적이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도록 배려해 준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건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표 6> 건강의료공간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 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의원/병원이나 보건소, 약국 이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걸어야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4.58 (.654)
위의 시설들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75 (.442)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주민운동시설 이 있다.	4.63* (.647)
실내 주민운동시설 은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바닥이 편평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지 등)	4.42* (1.018)
실내운동시설 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마련되어 있다.	4.71* (.464)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주민운동시설 이 있다.	추가
실외 주민운동시설 은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편평한 바닥,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마감 등)	추가
실외 운동시설 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추가
주민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사우나 가 있다.	4.46(.779)
공중목욕탕/사우나 는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출입구가 단 차이 없이 편평하고, 내부바닥이 물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마감 등)	4.33(.963)
주민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실 이 있다.	4.29 (1.042)
이미용실 은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출입구와 내부 바닥이 단 차이 없이 편평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지 등)	4.33 (1.007)
이미용실 에는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4.50 (.511)

*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운동시설로 하여 조사한 경우의 응답결과임.

(5) 공원녹지공간 영역

공원녹지공간 영역은 공원, 녹지(화단 포함), 산책로, 휴게공간(정자 포함)을 중심으로 노인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안전성, 조명, 운동공간, 볼거리, 단 차이, 화장실과 같은 노인친화적인 내용들과, 앉을 곳이나 의자 제공 등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9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9개 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표 7>과 같이 4.54점-4.88점의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7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16)에서 공원이 노인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근린생활

시설로 조사된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공간 영역은 제시한 9개 지표 모두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제시한 9개의 지표 중에서 공원·녹지나 산책로 곳곳에 앉는 공간이나 가구설비를 설치하는 지표와 운동공간이나 기구를 마련해 주는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이 각각 4.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원·녹지나 산책로의 근접 위치와 시각적 안전성의 적절성은 각 4.75점, 야간 조명시설과 단차 없는 바닥, 노인친화적인 화장실의 적절성도 4.71점씩으로 높았다. 또한 나무나 꽃, 물과 같은 자연 볼거리의 적절성은 4.67점, 지붕 갖춘 의자의 적절성은 4.54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접촉·만남을 위하여 주거지역 가까이에 공원·녹지나 산책로를 위치시키고, 이들 공간이 노인 친화적이며 사회친화적인 공간이나 가구설비 등이 갖추어진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공원·녹지공간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모든 주민이 이용편리한 공원·녹지나 산책로 가 있다.	4.75 (.532)
공원·녹지나 산책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안전 하게 되어 있다.	4.75 (.442)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이 필요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4.71 (.690)
공원·녹지나 산책로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나 기구 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4.88 (.338)
공원·녹지나 산책로에는 나무나 꽃, 물, 돌과 같은 볼거리 들이 있다.	4.67 (.565)
공원·녹지나 산책로의 모든 시설은 누구나 접근용이하도록 바닥 에 단차가 거의 없다.	4.71 (.624)
공원·녹지나 산책로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가능한 화장실 이 있다(80cm이상의 문 폭, 인접공간과 2cm이하의 바닥높이 차이, 핸드레일 설치 등).	4.71 (.550)
공원·녹지나 산책로 곳곳에 주민들이 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4.88 (.338)
공원·녹지나 산책로에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지붕을 갖춘 의자 가 설치되어 있다.	4.54 (.721)

(6) 도로 영역

도로 영역은 노인의 접촉·만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보행로는 노인의 외출 빈도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행로의 안전성, 단차, 유효 폭, 고른 바닥, 재료 등의 노인친화적인 내용들을 지표에 포함하였다. 여기에 앉을 공간이나 의자 등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때 노인공간 계획시 무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거나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곳곳에 의자 등을 두는 계획 원리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보행로의 경우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노인이 잠시 쉬거나 앉았다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려면 무엇보다 안전하며 쉴 수 있는 편안한 위치이면서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지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들 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표 8>과 같이 최소 4.04점에서 최고 4.67점을 주어 모두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도로영역 관련 10개 지표를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외출을 위해서는 우선 보행로가 노인 친화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보행로 중간 중간에 신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노인이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 도로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차도와 접한 보행로는 보행자의 안전 이 확보되도록 보차 분리되어 있다.	4.17 (.963)
자전거 도로와 접한 보행로는 보행자의 안전 이 확보되도록 분리되어 있다.	4.58 (.776)
횡단보도 는 신호등의 지속시간, 보행로와의 연결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4.67 (.637)
보행로와 횡단보도 바닥 사이의 턱 높이 는 2cm 이하이다.	4.58 (.654)
보행로는 유효 폭 이 90cm 이상 확보되어 있다.	4.63 (.647)
보행로 바닥 은 휠체어 사용자나 노인 보행기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이 고르게 되어 있다.	4.58 (.654)
보행로의 바닥마감재 는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재료로 되어 있다.	4.58 (.717)
보행로 중간 중간에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나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다.	4.58 (.654)
보행로에 있는 벤치 중 일부는 비나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 이 설치되어 있다.	4.46 (.721)
보행로에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가능한 남녀 공중화장실 이 설치되어 있다.	4.04 (.806)

(7) 대중교통시설 영역

대중교통시설 영역은 버스정류장,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를 중심으로 보았다. 지표내용은 총 5개로, 노인을 포함한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의 의자와 지붕 및 바닥 마감재와 관련된 내용들과, 자전거 보관소의 벤치 및 지붕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자전거는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는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함시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들 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표 9>와 같이 최소 4.04점에서 최고 4.75점의 높은 평가를 하여,

16) 이형숙, op. cit., pp.68

이들 내용이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대중교통 시설 관련 지표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 5개 항목을 거주자간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대중교통 시설 영역의 공간환경 지표로 설정하였다.

제시한 5개 지표 중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지표, 즉 의자 설치 여부와 지붕설치 여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료 사용의 지표로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4.75점과 4.54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자전거 보관소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4.04점과 4.17점을 주었다.

<표 9> 대중교통시설 영역의 지표 (N=24)

노인의 접촉 만남을 지원하는 지표내용	적절성 M(S.D.)
버스정류장에는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4.75 (532)
버스정류장에는 비나 강한 햇빛을 막아주도록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4.75 (532)
버스 정류장의 바닥 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다.	4.54 (658)
자전거 보관소에는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4.04 (806)
자전거 보관소에 설치된 벤치에는 비나 강한 햇빛을 막아주도록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4.17 (963)

(8) 종합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노인의 접촉·만남을 위한 근린환경 지표

근린환경 영역구분	지표갯수
주택의 반공적 공간	4개
상업공간	10개
문화교육공간	9개
건강의료공간	13개
공원녹지공간	9개
도로	10개
대중교통시설	5개
7개 영역	60개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근린환경 영역은 7개로 분류되며, 각 영역에 속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하는 60개의 지표가 설정되었다. 지표 내용은 공간에 따라 해당 공간이 주거지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지,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앉을 공간이나 의자 등이 배려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주거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노

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근린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환경이 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던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접촉·만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영역은 주택의 반공적 공간, 상업공간, 문화교육공간, 건강의료공간, 공원녹지공간, 도로, 대중교통시설의 7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둘째, 주택의 반공적 공간영역인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 주변 및 골목, 공동주택의 동과 동 사이 공간과 공동현관 외부 진입로, 공동현관 주변 내부공간과 엘리베이터 홀이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공간에 잠시 앉아서 쉬거나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벤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상업공간영역인 식료품점/편의점, 시장이나 쇼핑센터, 은행 등의 금융시설, 마을 음식점, 마을 찻집 등의 공간은 노인의 접촉·만남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공간이 노인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노인 친화적이며 잠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

넷째, 문화교육공간영역 중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노인관련시설(노인정,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종교시설 등은 노인의 접촉·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간들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공간이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하며 이들 공간에 노인들이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의료공간영역인 의원/병원, 보건소, 약국, 실내운동시설(볼링, 에어로빅, 요가, 수영장 등), 실외운동시설(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공중목욕탕/사우나, 찜질방, 이·미용실 등이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노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잠시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을 배려해 준다면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여섯째, 공원녹지공간영역인 공원, 녹지(화단 포함), 산책로, 휴게공간(정자 포함) 등이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공간들이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 사회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일곱째, 도로영역에 속하는 보행로는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배려하여 노인 친화적이며 보행로 중간 중간에는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 등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대중교통시설영역인 버스정류장,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도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 된

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시설이 노인을 배려하여 노인 친화적이며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는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주는 근린환경을 조성하는데 계획 또는 디자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환경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거주자들끼리, 또는 다른 거주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증대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모임이나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린환경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자 한 연구이다. 따라서 지표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디자인 지표들을 제시하는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선자·김경혜,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2. 김용진·안건혁, 노인의 주요 근린시설별 이용권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 5호, 2012
3. 이민홍·이재정, 부산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1
4. 이형숙, 노인들의 도보권 근린시설 이용현황 및 인지된 근접성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권 4호, 2011
5. Bell, P. A., Fisher, J. D., Baum, A., and Greene, T.C., Environmental Psychology(3rd ed.),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1990
6. Burton, Elizabeth & Mitchell, Lynne, Inclusive Urban Design : Streets for Life, Elsevier, 2006
7. Hall, Edward T., The Hidden Dimension, A Doubleday Anchor Book, 1961
8. Kazuhiko, Mori, 치매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가꾸기, 한국노년학회,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정책과제, 제6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 2011
9.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
10. Whyte, William H.,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Project for Public Spaces, 1980

[논문접수 : 2014. 02. 24]

[1차 심사 : 2014. 03. 19]

[게재확정 : 2014. 04. 10]